



백남준 미디어아트, 인간과 인간·세계와 세계를 잇다



“루벤스 시대의 뛰어난 화가는 임금 얼굴을 잘 그리는 것이고 현대에 오면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거지. 지루한 일상에 재미를 던져주는 것. 오즈음을 보라고. 우리 주위에 어디 하나 부족한 게 있냐고. 21세기는 살 물건이 없는 시대야. 뭐든지 다 있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할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야. 예술가는 욕망의 창조자가 돼야 하는 거지.”

백남준의 어록이다. 1992년 7월 어느 날 뉴욕 맨해튼 작업실에서 했던 말이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생전의 백남준이 주옥같은 말들, 삶과 예술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느껴지는 어록들과 만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지맵)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 (2024년 3월 31일까지).

전시 제목부터 눈길을 끈다. ‘네온TV 연작’에서 따온 것으로, 1950~60년대 빈티지 브라운관 TV안에 네온사인과 페인팅 등을 활용해 백남준 예술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미디어가 물리적 거리나 한계를 초월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잇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맵 1, 2, 3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다.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을 비롯해 드로잉, 아카이브 자료 외에도 무엇보다 국내외 문화예술기관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설치 작품 ‘안심낙관’을 현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경호 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아시아 최대 개인 소장가인 김수경 우리들그룹 회장, 홍성은 레이너 그룹 회장에 의한 특별 전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백남준 미디어아트의 작품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자리”라고 말했다.

제1전시실 입구 앞에는 컬러 TV가 놓여 있다.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 지맵, 미디어아트 특별 전시 비디오·드로잉·아카이브 등 설치작품 ‘안심낙관’ 최초 전시

화면에는 백남준과 관련한 내용이 방영되는데 젊은 시절 작가의 활동 내역 등을 볼 수 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백남준의 대표작들과 조우하게 된다. ‘Green: Meditation’이라는 1전시실 주제는 동양과 서양, 과학기술과 전통적 사유 등 상이한 개념이 매체와 맞닿은 세계에 조점을 맞췄다.

“예술과 기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다른 과학적 장난감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전자 표현 방식인 기술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이다”라는 말과 대면한다. 백남준이 1974년 이르멜린 리비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가장 먼저 마주하는 ‘TV아쟁’은 작가가 한국적인 미를 표현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연주자가 ‘TV아쟁’을 연주하면 총돌하는 전자음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 TV 속 화면이 일그러진다. 작가는 음악을 생성하는 과정을 매개로 인간과 기술의 결합을 숙고하게 한다.

가부좌를 튼 부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블루부처’도 이색적이다. 네온사인과 4개의 모니터로 구성된 작품은 고전적인 부처의 상과 화려한 네온이 맞물려 모순적인 이미지를 창출한다. 푸른색은 전체 작품을 지배, 평화와 같은 불교 사상으로 초점화한다.

제2전시실은 ‘Red: passion’을 주제로 한다. 이곳에서는 백남준의 과거, 다시 말해 그에 대한



1.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은 내년 3월 31일까지 ‘백남준: 사랑은 10,000마일’을 주제로 특별전을 연다. 2. ‘블루부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다양한 자료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탄생시킨 백남준의 역사적인 첫 개인전 ‘음악의 전자-전자 TV’ 기록물을 시작으로 사진을 비롯해 서신, 자료 등이 관객들을 맞는다.

“비디오 테이프는 되감기 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삶은 되감기 할 수 없다. 비디오 테이프 녹화기에는 ‘빨리 감기’, ‘되감기’, ‘정지’ 버튼이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시작’ 버튼 하나뿐이다.”라는 문구는 오늘의 우리에게 삶과 예술, 현재의 중요성 등을 일깨운다.

양 벽면에 부착된 작가의 다양한 드로잉 작품은 마치 백남준이 여전히 생존해 있는 듯한 현실감을 준다. 어디에선가 전진난민한 미소를 지으며 스케치를 하고 있을 것만 같다.

푸른색이 상징하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코너도 있다. 제3전시실 ‘Blue: Hope’는 자연과 인류가 전자매체를 매개로 공생하는 ‘디지털 휴머니즘’에 초점을 맞췄다. 기술의 구현과 활용에 중심을 두기보다 전자기술을 ‘인간적으로’ 다루자는 취지다.

이 전시실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은 ‘안심낙관’. 백남준이 뇌졸중으로 치료 받을 당시 주치의에게 감명을 받아 제작했다. 주치의는 그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고 안심시키는 것은 물론 낙관적 사고를 하게끔 유도했다.

고영재 학예사는 “이 작품을 통해 백남준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많은 환자들에게 안심낙관의 의미와 삶의 태도 등을 보여주고 있다”며 “오늘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윤미연 작 ‘그물과 꽃’

패션과 주얼리에 입힌 ‘화합’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 졸업작품전, 21일까지 호심미술관

미지의 영역을 뛰어넘어야 할 예비 졸업생들. 졸업이라는 말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아울러 아직 펼쳐지지 않은 세계에 대한 불안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희망과 불안을 관통하는 것은 ‘가능성’이다. 젊음이 아름다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 가능성이 잠재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광주대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가 2023년 졸업작품전을 연다.

12일 개막해 오는 21일까지 호심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희망’.

졸업생은 안성규, 김광현, 김준혁, 심대선, 조윤희, 박다희, 김사랑, 나유진, 신가을, 채수빈, 이주영, 강수빈, 박경현, 심선호, 이승노, 전은진, 김나영, 윤미연, 양소영 등 모두 19명이다. 전시는 ‘패션’, ‘주얼리’, ‘패션주얼리 협업 디자인’ 등 3개 부분으로 진행된다.

그 가운데 패션은 ‘과거의 멋을 현대화하다’, ‘팝아트에 개성을 더하다’, ‘미래를 설계하다’, 타

이백’으로 구성돼 있다. 한복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과거의 멋을 현대화한 작품은 고요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팝아트에 개성을 입힌 작품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친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하는 타이백은 미래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공한다.

주얼리 작품이 주는 세련된 감각과 고혹적인 아름다움은 오랜 여운을 주며, 패션과 주얼리가 결합한 작품들은 현대적인 감각과 스타일리시한 이미지를 선사한다.

한편 이승연 패션·주얼리디자인학부장은 “이번 전시는 광주대 디자인 전공자로 4년간 학업을 매듭짓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예비 졸업생 모두가 미래 패션·주얼리 산업을 이끌 미래지향적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내 문화예술기관에서 처음 선보이는 설치작품 ‘안심낙관’

아트페어와 함께 하는 골목 여행 17일 예술이백그라운드·씨어터연바람

광주 골목과 문화예술공간을 탐방하면서 예술을 즐기는 ‘아트페어’.

광주시 동구와 예술이백그라운드가 ‘아트페어와 함께 하는 여행여행 골목·구성진 예술로 아트페어(이하 아트페어)’를 오는 17일 오후 1시부터 연다. 예술이백그라운드와 씨어터연바람.

이번 아트페어는 관광트렌드와 예술을 접목, 예술의 향기가 깃든 광주 골목에서 문화예술 공연·행사를 선보이는 자리다. 문화공간 감넷과, 오시오마켓, 금호시민문화관 등과 연계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총 네 개의 부스로 구성된다. 우리 지역 아동·청소년 문학 작가 윤미경과 함께 동화, 동시 등을 읽는 ‘문학 부스’, 지역 젊은 뮤지션인 우물안개구리, 성민길, 임웅, 기드온 등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음악 부스’가 마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역화가(전현숙, 조수경, 이선희)의 그림을 감상하고 자화상을 스케치해보는 ‘미술 부스’, 차세대 배우를 꿈꾸는 예술대 진학생들을 응원하는 액트스쿨 ‘연극 부스’는 지니엑터스 연기학원이 동참한다.



‘노인과 바다’ (예술이백그라운드 제공)

한편 아트페어의 일환으로 ‘모노드라마 콘테스트’도 열리고 있다. 초·중·고·대학생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3분 내외의 자유연기(연극, 드라마, 판소리, 뮤지컬 등)를 이메일로 또는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에게 푸른연극마를 티켓과 단

막극 출연 기회, 캐스팅 및 워크샵 특전 등이 주어진다.

심사위원은 오성완(푸른연극마를 대표), 영화감독 진모영 등이 맡는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 (광주가톨릭평화방송 제공)

신에 대한 찬미, 아름다운 성탄 화음

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 15일 광주대교구청

신에 대한 찬미, 아름다운 성탄에 대한 화음을 소년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cpbc광주가톨릭평화방송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단장 이옥수 신부·합창단)은 ‘예수님 어서오세요’라는 주제로 제8회 정기연주회를 오는 15일 오후 7시 30분 광주대교구청 성당에서 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는 대림시기(대림 제 1주-12월 16일)를 맞아 마련된다. 총 4부로 구성.

1부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사랑과 평화의 예수님’, ‘하느님 약속하신 분’ 3곡을 합창단이 들려줄 예정이다. 이어 2-3부는 ‘동정녀시여! 기뻐 하소서’, ‘성모송’, ‘천양-성모의 노래’를 비롯해 친숙한 노래 ‘아기 잘도 잔다’, ‘천사들의 캐롤’과

‘종들의 노래’로 채워진다.

대미는 ‘메리 크리스마스 인 러브’, ‘크리스마스 캐롤 쟈몰리’ 등 성탄의 기쁨을 녹여낸 악곡들이 장식할 예정이다.

2014년 창단한 피아트도미니 소년합창단은 라틴어로 ‘주님 뜻대로’를 뜻한다. 7세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30여명 소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 지휘자에 백정빈, 피아노 박지수, 음악코치에 천기연.

천주교 광주대교구장 육현진 대주교는 “소년합창단원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주님을 축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밝은 목소리로 채워지는 공연을 감상하며 희망과 평화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